



I. 서론

I. 서 론

1. 저자 : 사도 바울

킹제임스 성경에는 표제어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수 세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필사본들에 붙은 이 책의 표제어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에게” (Pros Hebraious)로 되어 있다. 또한 “일찍이 2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하여 토의하고 있었다. 190년 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바울이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누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결론 지었다.”⁵⁾

바울은 편지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일련의 다소 표준적인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에는 구약 자료들을 인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다. 자주 ‘70인역’에서 인용하지만 때로는 히브리어를 자신이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쓰기도 하며, 또 구약의 원문에 함축된 풍부한 내용을 저작 의도에 따라서 축약하기도 하고 확대해 적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활용은 저자가 70인역(구약의 고대 헬라어 역본)과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 정통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 허홍팔 역, 윌리엄 G. 존슨 저, 히브리서(풍요한 생애를 위한 성경 확대경)(서울: 시조사, 1999), p. 28.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를 사용했으며, 구약성경과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 그들의 거룩한 역사, 제도적 유산에 정통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정돈된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높은 수사학적 문학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어떤 비평가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의 다른 편지서들보다 문체가 훨씬 아름답고 품위가 있기에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그가 옥중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며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M. L. 앤드리어슨은 그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옥중에 있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하였다고 보는 또 다른 확고한 증거들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AD 215년경 사망,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vi. 14. 2. 3에서 인용)는 바울이 처음에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말하였다” (SDA 성경주석, 히브리서 서문에서 인용).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자신을 제 2세대 그리스도인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 내증은 다음과 같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2:3)는 언급이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23에서 디모데를 언급한 것과 ‘바울적인’ 교훈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은 많은 계열에서 주장하던 전통적인 견해였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원본은 1909년에 출판되었고 1937년과 1945년에 개정되었다)의 서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시” 라고 쓰고 있다.”⁶⁾

이렇게 바울을 저자라고 생각하는 역사성과 전통성에 확신을 더해 주는 것은 E. G. 화잇의 무게 있는 영감에 의한 진술이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각 시대의 대쟁투’ 중 ‘하나님의 성소’ 장에서 8번이나 바울을 저작자로

6) 김진선 역, 브루스 B. 바톤 외 2인 저, 히브리서(LAB 히브리서 주석시리즈)(서울: 성서 유니온 교회 선교회, 2002), p. 12.

지칭하며 히브리서를 인용하였다. 그 외 다른 여러 인용 부분들에서도 ‘사도’ 혹은 ‘바울’ 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확신하였다.

2. 기록 연대와 역사적 배경

저자의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행 20장)했던 58년경부터 예루살렘이 세스티우스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66년 10월 사이에,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올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아직도 의식적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 있는 자”(행 20:21)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변절된 자라고 선동하였으므로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업이 막힐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개혁 사업에 대한 반감을 무마시키고자 7일 동안 결례(정결의식)를 행하게 한 다음, 바울이 비용을 대어 저들에게 있는 서원한 네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였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유대의 옛 제도를 고수하는데 열심 있는 ‘열심당원’(Zealotes, 셀롯당)⁷⁾ 수만 명이 있었다. 그들은 옛 제도에 매여 “큰 구원을 등한히”(2:3) 함으로 흘러 떠내려 갈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거치는 돌이요 반석이 되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사상을 계몽해

7) 김은태에 의하면 “열심 있는 자”로 번역된 “젤로타이”는 남성복수 주격으로 명사 젤로테스는 “열심히 불타다”의 동사 ‘젤라오’에서 유래했으며 ‘셀롯당’(Zealots)은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바리새파에서 발전하여 후에 ‘열심당원’이라 불린 자들이다. 아래 서적을 참고하라. 김은태, 사도행전의 교훈과 선교주자들(서울: 삼영출판사), 2011, p. 512.

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옛 제도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구주의 신성과 인성을 높이며, 특별히 장기간 부재 상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성의 멸망, 곧 그 파괴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 제도에 대한 헛된 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곧 세스티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할 때가 박두해 오고 있었다. 바울의 시야에는 유대 민족의 환난과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위기가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이때 만일 저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고, 보이는 희생 제물대신 더욱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구주로 향해 하늘을 바라본다면 저들은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바울은 민족적 신앙의 긍지요 자랑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늘에 그들의 집이 있고 성소가 있다는 사실로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옛 유산을 새 언약의 성소와 연결시켰다.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통해 표현된 거룩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새로운 진리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 시켰다. 그들은 오직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만 영혼의 닳을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에도 요동치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을 히브리서를 통해 당부하고 있다.

3. 수신자 :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유대 종교 관습의 한시성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막에서 이루어진 희생제도와 하나님의 안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약속들,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잠자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2) 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대의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강조는 이 서신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잘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주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가 택한 백성에게 인류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고안하신 상징들과,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는 봉사의 실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표상적 제도 아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체험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경고로 제시되고 있다. 표상적 제도와 그 제도 아래서 겪은 이스라엘의 체험을 통하여, 바울은 하늘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와 인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5. “권면의 말” (13:22)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의 선물과 관

련된 많은 이적들(2:3-4)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직접 받는 특권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핏박이 몰려오면서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던 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옥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고난을 받았다(10:32, 34).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등한히 하면서 물결치는 대로 시류에 휩쓸려 떠나려가고 있었다(2:1).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실패했다(5:11-14). 그들은 핏박을 피하기 위해 점차 예배를 위한 모임을 꺼려했다(10:25).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6:4-6; 10:26-31; 12:15-17).

그래서 바울은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 하듯 권고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라!’ (2:1), ‘생각하라!’ (3:1), ‘단단히 붙들라!’ (3:6, 14; 6:18), ‘열심을 내라!’ (4:11; 6:11), ‘피차에 권면하라!’ (3:13; 10:25; 13:19, 22), ‘상기하라!’ (10:32), ‘참으라!’ (10:36; 12:1).

6. 중심내용

1)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지존하심과 인성의 우월성은 이 책에 나타난 경륜들의 기초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및 본질의 형상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셨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가 인성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보좌는 영원하’ (1:8)신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천사

중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형제들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성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분으로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혹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분의 인성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 (5:8-9)신 구원의 근원으로서의 인성이었고, 인류의 선두로서의 인성이었다. 그의 육신 안에서 모든 죄는 정복을 당하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맏아들이 되셨다(1:9; 4:15). 그는 인성으로 율법을 마음에 두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10:7, 16). 그는 죄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10:26, 28). 그러므로 그는 단번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10:10)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 (10:10)실 수 있으시다.

2) 하늘 성소의 유일하신 중보자

땅의 대제사장(3:1; 4:14~5:10; 6:19~8:6; 9:6~10:22; 13:11~13)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

3) 지성소에 들어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제시

구약의 희생제물은 완전해야 했다(1:3; 2:9; 7:27; 9:12~14, 24~28; 10:5~22).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는 예물이 완전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하셨다. 그의 생애가 완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분이어서 계신다.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야 한다. 히브리서는 ‘죄로부터 정결케 된 양심’ 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완전한 믿음’ (10:19-22)이라고 강조한다. 로마서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는 권고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히 10:22)가라는 히브리서의 권면과도 같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순례 백성을 특징 짓는 특성이다.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비난과 박해와 고문과 순교를 당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환경이나 보상에 관계없이 완전한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고, 또한 완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4) 죄는 심각한 문제임

히브리서는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9:28)만을 데리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옛 언약 시대의 율법 아래의 죄보다 새 언약 아래의 죄는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된 반면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10:28~29).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 (10:26)다.

더욱 진리를 많이 알고 범죄한 자는 그 형벌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 (6:6)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5)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11:13)로서 이 땅에 잠시 순례의 장막을 치고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11:16).

6) 예수님은 언약에 대한 보증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언약(4:1~11; 6:13~20; 7:18~25; 8:6~9:22;

10:15~16)의 하나님으로 나타낸다. 옛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룩한 ‘언약’ (covenant)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언약을 받았다(창 12:7; 15:7; 15:18; 24:7).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롬 4:13)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 (4:1)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될 자’ 들의 경험이 된다.

‘가나안의 안식’ 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안식’ 에 대한 모형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모델(출 34:17)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원형이요 약속의 “씨” 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였고(신 18:15; 3:21-22),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실 보증이 되셨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하나님의 안식’ 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때이다. 지금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때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 에 들어가는 경험은 ‘안식일 안식’ 과 ‘은혜의 보좌’ 에 나아가는 안식이다. ‘안식일 안식’ 은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주시는 안식의 경험이며 ‘은혜의 보좌’ 에 나아가 얻는 안식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주시는 안식이다. 안식일 안식이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안식은 공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 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또한 시대적인 진리로서 제시된 ‘안식일 안식’ 과 ‘히늘 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경험’ 은 ‘죄와 상관없게 되는 경험’ (9:27-28)이며, 장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보장이 된다. 히브리서는 아울러 제사제도는 한시적이지만 제칠일의 안식의 경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로

서 영원토록 존속될 제도임도 확고하게 하고 있다.

7) 더 좋은 언약(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하에서 언약과 율법, 심오한 종교 의식의 수혜자들이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축복도 받았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사장’ 이 되고, ‘더 좋은 사도’ (선지자)시며, ‘더 좋은 희생제물’ 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새 언약은 대제사장이 일 년에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9:7; 10:1, 19~22). 지성소 시대에 이루어질 특별한 정결 사업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의 정결’ 과 ‘양심의 온전’ 을 이루어 ‘생애에서 죄를 끝내는 경험’ 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의 법을 심중에’ (시 40:8)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 (10:9)하기를 즐기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10:16).

8) 인내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가족들로부터 쫓겨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박해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利)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誣告)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

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鬪技場)에 던져 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8).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10:36)고 권고한다. 인내는 모든 상급과 유업을 이루는 덕목이다(2:1~4; 3:1~19; 4:11~16; 6:4~12; 10:19~39; 12:1~29).

8) 각 시대의 대쟁투(Ellen G. Whit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p. 40.